

#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인식한 직무역량과 교육요구

김현경<sup>1</sup> · 은 영<sup>2</sup> · 전경자<sup>3</sup> · 소애영<sup>4</sup> · 김희걸<sup>5</sup> · 엄미란<sup>6</sup> · 송연이<sup>7</sup> · 최은숙<sup>8</sup> · 박지연<sup>9</sup> · 김형숙<sup>10</sup>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sup>1</sup>,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 건강과학연구원<sup>2</sup>,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sup>3</sup>,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sup>4</sup>, 가천대학교 간호학과<sup>5</sup>,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sup>6</sup>, 충청대학교 간호학과<sup>7</sup>, 경북대학교 간호대학<sup>8</sup>,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sup>9</sup>,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sup>10</sup>

## Job Competencies and Educational Needs Perceived by New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Kim, Hyun Kyung<sup>1</sup> · Eun, Young<sup>2</sup> · June, Kyung Ja<sup>3</sup> · So, Ae Young<sup>4</sup> · Kim, Hee Gerl<sup>5</sup> · Eom, Mi Ran<sup>6</sup> ·  
Song, Yeon Yi<sup>7</sup> · Choi, Eun Suk<sup>8</sup> · Park, Ji Yeon<sup>9</sup> · Kim, Hyoung Suk<sup>10</sup>

<sup>1</sup>College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sup>2</sup>College of Nursing,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sup>3</sup>Department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sup>4</sup>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Wonju

<sup>5</sup>College of Nursing, Gachon University, Sungnam

<sup>6</sup>Departmen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Muan

<sup>7</sup>Department of Nursing, ChungCheong University, Cheongwon

<sup>8</sup>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sup>9</sup>Graduate School, 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sup>10</sup>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job competencies and needs for job education perceived by new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Methods:** This study used a qualitative research design. Eight new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Results:** Five job competencies were identified in this study, including primary care, public health managem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aching and counseling, and leadership. The contents of job education that they needed were management of major symptoms and chronic diseases, understanding and prescription of medications, emergency responses and care, management of endemic diseases, planning and management of public health programs, writing official documents and computer works, and leadership training. The learning methods they preferred were connecting theory and practice, situation- or case-based learning, skill- or practice-based learning, and increased opportunities of clinical practice.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d the direction of job education for new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Job education for new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needs to consider the job competencies and educational needs identified in this study.

**Key Words:** Professional competence, Education, Needs assessment, Primary health care, Qualitative research

**주요어:** 핵심역량, 교육,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질적 연구

**Corresponding author:** Eun, Young

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816 Jinju-daero, Jinju 660-987, Korea.

Tel: +82-55-772-8233, Fax: +82-55-772-8209, E-mail: yyoeun@gnu.ac.kr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13-26).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Health Promotion Fund,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No 13-26).

Received: Oct 22, 2013 | Revised: Apr 9, 2014 | Accepted: May 7, 201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 및 교통수단의 발달 등과 같은 의료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1981년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모집이 시작되어 의사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 지역에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1]. 이에 따라 1981년 1차로 전국 257개 마을에서 24주간의 교육을 마친 257명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2010년 현재 1,912개소의 보건진료소에 1,889명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일하고 있다[2].

농어촌특별법에 의하여 보건진료소가 개설된 이래로 30여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보건진료소가 주로 위치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생활권의 변화는 인근도시의 의료기관 이용을 편리하게 하여 농어촌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3]. 전문간호사 교육을 대학원과정에서 실시하고, 제도를 갖추기 위한 진행을 하는 등 간호전문직화의 심화는 보건진료소의 역할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4]. 또한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 개설 초창기에 임용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의 정년이 도래하고 있어, 2017년에는 현재 인력의 46.8%가 퇴직을 할 것으로 예측되어 보건진료소는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역할의 변화와 함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세대교체라는 내적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정책개발이나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5].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Kim[6]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사례분석에서 통상질환관리와 건강교육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제공되고 있고, 지역주민의 90% 이상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환자간호, 모자보건, 가족계획, 혹은 환자 이송을 책임진다고 인식하고 있고, 주민의 83%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건강 상담과 교육을, 주민의 60~70%는 환경개선사업, 회의 참석, 마을 건강원 교육과 가정방문을, 그리고 43%는 지역의 건강문제 건의를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후 Youm과 Kwon[7]은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전라북도 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특성

과 업무를 분석하여, 시대의 변천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무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업무는 여전히 진료업무가 가장 많았으나, 2000년에는 모성보건, 영유아보건, 가족계획, 결핵관리는 현저히 감소하였고, 새로이 지역사회 보건정보 수집이 추가되고 보건교육이 증가하는 변화가 있으며, 1일 평균 진료 환자 수는 증가하였고 지역사회에 대한 친밀도와 직업의 만족도 역시 증가하여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게 공공보건사업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Kim과 June[3]은 질적 연구를 통하여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주된 업무들인 주민의 일차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영역과 지역사회 환경관리 등 진료의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스스로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존재 (community vitalizer)’로 지각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간호영역을 개척하는 초석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여러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지난 30년 동안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직무규정에 의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의료·환경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친밀도 및 전문성을 토대로 능동적으로 지역사회 내 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3]. 이때 역량이란 사전적 정의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나 기량을 뜻하는 것으로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이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들이 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일 혹은 업무와 이를 위한 자질이나 능력을 역량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4년제 간호대학 교육기관이 증가하고, 전문간호사 제도가 마련되는 등 간호전문성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에게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직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위한 직무교육이 새로이 제공되는 시점에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이 인식하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직무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직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이 신규로서의 역할감당을 줄이고 현실충격을 줄여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직무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이해하고, 직무교육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인식하는 직무역량을 이해한다.
-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교육요구를 기술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직무역량과 직무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일대일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내용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2012년 6개 시도, 28개 보건소에서 선발되어 2012년도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직무교육에 참여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46명 중 보건진료소의 지역적 분포, 면담 참여의지를 고려하여 현재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참여자를 의도적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총 8명의 대상자가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20대 3명, 30대 3명, 40대 1명, 50대 1명이었으며, 임상경력은 평균 8.2년(2개월~25년), 교육정도는 전문대졸 4명, 4년제졸 3명, 대학원졸 1명이었다. 결혼상태는 4명은 미혼, 4명은 기혼이었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반구조적 질문을 통한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질문은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인식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직무교육에 대한 요구는 무엇인가?”였다.

면담을 시작하면서 직무역량과 관련하여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라고 질문하였고, 추가적으로 직무수행에서 특별히 어렵게 느껴진 부분이나 영역은 무엇인지 보충 질문하였다. 직무교육 요구와 관련하여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라고 질문한 뒤, 직무교육 내용이 보건진료소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에 충분하였는지, 직무교육 내용 중 보건진료소 업무수행에 특별히 도움이 된 부분은 무엇인지, 직무교육과정에 추가로 꼭 포함되었으면 하는 부분이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추가 질문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개별적인 면담 일시와 장소를 정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와 직접 만나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다시 설명하였고, 참여자 및 면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자료분석을 위한 면담내용의 녹취 등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서면동의서에 동의를 받고 면담을 시작하였다. 면담은 참여자가 근무하는 보건진료소나 녹취가 가능한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였다. 면담 도중 면담내용을 모두 녹음하였고, 녹음된 내용은 면담이 끝난 후 바로 필사하였으며 자료의 오기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가 필사된 내용과 녹음된 원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미리 범주를 정하지 않고 자료에 몰입하면서 귀납적으로 주제를 도출하는 전통적인 내용분석[8]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질적 연구의 경험이 많은 연구자 2인이 각각 자료에 몰입하여 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료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였으며,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직무역량과 교육요구로 구분하여 일차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명의 분석자가 자료의 내용 중 직무역량이나 교육요구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생각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와 문장들을 추출하고, 비슷한 의미와 주제를 가진 문장들끼리 모아 주제들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주제들 간의 연계성에 근거하여 보다 추상적이고 함축성이 큰 주제로 묶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과정에서 범주나 개념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두 명의 연구자 간에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조정함으로써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조정된 내용분석

결과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직무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체 연구자들과의 협의와 피드백을 통해 재조정하였다.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 중 2인에게 최종 자료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분석의 범주와 내용의 적합성을 확인받았다.

## 연구결과

### 1.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직무역량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은 일차진료 역량, 보건관리 역량, 대인관계 역량, 교육 및 상담 역량, 리더십 역량의 총 5가지로 분석되었다. 각 역량은 다시 2~4개의 주제로 도출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Competencies Perceived by New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Job competency	Sub-competency
Primary c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agnosis of health problems</li> <li>· Prescription of medications</li> <li>· Emergency care</li> <li>· Visiting care</li> </ul>
Public health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lanning of public health programs</li> <li>· Administrative affairs</li> <li>· Connecting resources</li> </ul>
Interpersonal relation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rmony with local residents</li> <li>·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li> </ul>
Teaching and counse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ealth education</li> <li>· Counseling of local residents</li> </ul>
Leade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ertion of initiative</li> <li>· Coordinating role</li> <li>· Self-development</li> </ul>

#### 1) 일차진료 역량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업무 중 일차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의 위치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고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참여자들은 여전히 지역주민을 위한 일차진료 역량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1) 건강문제 진단

참여자들은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진료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상자의 증상을 토대로 건강문제를 진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진단 내리는 거. 감별진단. 할아버지들 오셔서 ‘나 어지러운데 왜 이래요?’ 이러세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하는데 이유 많잖아요. 빈혈, 식사, 등등 있는데 다짜고짜 하시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단이 어려우니 병원 가보시라고’... 모르는데 아무 약 드리는 거보단 나올 것 같아서... (중략)... 모르면 그 말밖에 못해요 (참여자 6)

##### (2) 약물처방

참여자들은 독자적인 진료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기존의 투약관리 외에 허용범위 내의 약물을 처방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어려움을 토로하며 약물처방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우선 무엇보다도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이 약을 처방받고 약을 주던 일을 하던 병원간호사에서 독자적으로 약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투약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해야 할까...(참여자 7)

##### (3) 응급처치

참여자들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도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응급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험이 부족한 경우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응급처치와 관련된 능력이 필요함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일하면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저는(주민들이) 바닷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화상 환자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김 양식을 하시는 데, 김 양식을 하시다 보면은 염산을 쓰시고...(중략)...저는 신생아실 병동에서만 일을 해서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역량이 필요한 것 같아요.(참여자 3)

##### (4) 방문간호

참여자들은 주로 보건진료소 내에서 일차진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특성상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을 보살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술기 역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지역분들이 대부분 고혈압, 당뇨 등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중략)... 그런데 그분들이 의원이나 그런 곳을 가기 힘들어 하세요. 독거노인 분들은 방안에만 계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서 혈압이랑 혈당 재드리고...(참여자 4)

## 2) 보건관리 역량

참여자들은 일차진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실에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게 일차진료의 업무를 넘어선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보건관리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 (1) 보건 프로그램 기획

참여자들은 지역주민의 증상이나 질병 관리 외에도 건강관리나 증진을 위한 보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지역에 따라 보건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운영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진료실적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창의력, 조직력, 운영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까?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지역사회 진단을 하면서 뭐가 더 필요할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도와줄까? ...(중략)... 우선은 창의력이 있어야 하고...(참여자 5)

대부분 젊은이들이 없고 어르신들이 많아서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제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되고 특히 보건진료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해요.(참여자 8)

### (2) 행정업무

참여자들은 6개월간의 직무교육 후 공무원교육을 따로 받지 못하고 곧바로 업무에 투입된 경우가 많았는데, 공문서 작성이나 전산작업 등 행정업무에 관한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업무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일 힘들었던 건 공문 작성을 할 때 스펠링은 했지만

공문서 쓰는 방법을 저희는 사실 교육을 받지 않았고 직무교육도 없었고 진료소 가서 2주간 교육 받은 게 다고, 특히 제일 나이가 들어서 컴퓨터능력이 부족하고...(참여자 5)

오늘부터 발령이야, 오늘부터 가, 이러면 혼자 가서 내가 어떤 분한테 연락을 해야 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내야는지, 어떤 양식으로 내야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참여자 3)

### (3) 자원 연계

참여자들은 일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센터나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을 의뢰하거나 관련 기관 및 직원들과의 협력이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병원을 의뢰하거나, 지역 정신보건센터 같은 곳을 알려주고 가게하고, 의료원을 소개하고... ...(중략)... 그제가 잘 모르거나 혹시 연결해주고 싶거나 이러면 저는 보건소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도움 받을 데가 있냐?’ 뭐 이렇게 묻고 그렇거든요.(참여자 1)

...(전략)... 제가 직접 찾아가서 혈압 등을 재보고 다른 문제가 있으면 면사무소나 보건의료원과 연계를 해서 해결해드리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참여자 4)

## 3) 대인관계 역량

참여자들은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교류가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적절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이 직무수행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1) 지역주민과의 융화

참여자들은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이나 지역주민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특유의 친화력이나 유연성을 발휘하여 지역주민들과 융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제일 중요한 역량 같은 게 인간관계, 친화력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저도 일 못해도 말로 ‘죄송해요’ 한 마디면 괜찮다고 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거 보니까 친화력, 아무래도 그 주민 분들이랑 친해지고...(중략)... 지식도 지식인데 친화력이나 그런 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참여자 6)

## (2) 지역주민과의 소통

참여자들은 지역주민들과의 교류가 많고 노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의 특성상 지역주민들과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어두우시니까 본인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꾸 이제 뭐 얘기를 해도 정확하게 이해가 전달이 잘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서로 얘기를 하고 또 몰라도 다시 좀 알려드리고,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의사소통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참여자 1)

## 4) 교육 및 상담 역량

참여자들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을 제공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 (1) 건강교육

참여자들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강검진이나 검사 결과, 건강보조식품이나 약물 사용, 건강증진, 질환관리 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질문을 받기도 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와서 물어보세요. 어르신들 중에서 자식들이 먹으라고 약을 보내준 거예요. 건강식품, 영양제 이런 걸 보내줬는데 들어도 모르시는 거예요. ...(중략)... 건강검진 받았는데 그 결과 같은 거 병원에서 얘기를 다 들으셨지만 또 몰라서 갖고 오시고...(참여자 1)

### (2) 주민상담

독거노인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의 경우 외로움이나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거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식 분들도 잘 안 오시고 독거노인 분들은 방안에만 계시거든요. ...(중략)... 할머니들이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면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하세요.(참여자 4)

## 5) 리더십 역량

참여자들은 최근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발령받아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부족한 편인데도, 자신의 나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지역 내에서 리더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리더십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1) 주도성 발휘

참여자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설득하며, 지역주민들이 때로 자신의 업무영역을 넘어서는 무리한 사항들을 요구할 때에도 상황을 이해시키는 등 주도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진료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 하는 것에서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상황을 이해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할까, 아무튼 주민들을 설득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참여자 7)

### (2) 조정역할

참여자들은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주민들 간에 또는 보건소와 주민들의 요구가 상충되거나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측의 요구들을 중간에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리더의 입장도 있고, 보건소와 주민들과의 의견을 조정해서 주민들의 불만과 보건소의 불만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참여자 4)

### (3) 자기계발

참여자들은 지역 내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인식하여 개인적으로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혼자 있으니까 뭐든 배우고 자꾸 공부를 하고 하라고 그래서 그럴 시간이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여기서 뭐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듣고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참여자 1)

## 2.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교육요구

참여자들은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경험을 토대로 실제 현장에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다양한 교육요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직무교육 내용과 방법의 측면에서 분석되었다(Table 2).

**Table 2.** Educational Needs Perceived by New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Categories	Sub-competency
Contents of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nagement of major symptoms and chronic diseases</li> <li>• Understanding and prescription of medications</li> <li>• Emergency responses and care</li> <li>• Management of endemic diseases</li> <li>• Planning and management of public health programs</li> <li>• Writing an official document and computer work</li> <li>• Leadership training</li> </ul>
Learning metho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necting theory and practice</li> <li>• Situation- or case-based learning</li> <li>• Skill- or practice-based learning</li> <li>• Increased opportunities of clinical practice</li> </ul>

### 1) 직무교육 내용

#### (1) 주요 증상 및 만성질환 관리

참여자들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증상 및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많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중요한 대표적인 증상이나 질환을 선별하여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교육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두통, 복통, 설사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너무 많이 배우다보니까 내용은 너무 좋은 데 아무래도 역량이 조금 부족해서 그걸 다 흡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병하고 기전 이런 걸 그냥 대표적인... (중략)... 산과 이런 것도 배우긴 하는데 사실 요즘에 진료소에서 누가 얘기를 받겠어요. ... (중략)...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 증상을 조금 더 골라서, 선별적으로 골라서 깊이...(참여자 3)

#### (2) 사용약물 중심의 이해와 처방

참여자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면서 약물에 대한 이해와 처방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약이나 약물에 대한 교육보다는 실제 보건진료소에서 사용되는 약물을 중심으로 교육과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약물처방에 관한 프로토콜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약물 같은 것도 우리가 사용도 하지 않는,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만 배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약을 중심으로 약물에 대해서 효과, 부작용 등이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면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것 말고 우리가 사용하는 약제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싶어요.(참여자 7)

베스타제 이러면 소화제고, 용법 용량 하면서 금기 환자 알려주고 실제적으로 쓰는 약물을 세세하게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진료소 사용약물 중에서 뭐뭐는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던가 하는 걸 배우면 나을 것 같아요. 혈압 약 한 달은 가능하고 이런 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혈압약은 의사 소견이 있어야 줄 수 있는데 약이 다 떨어졌는데 나가질 못한다는데 3일치만 주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루치도 안되나... 좀 애매하고, 실무 프로토콜 확실히 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참여자 6)

#### (3) 응급처치 및 대처요령

한 참여자는 응급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처치방법이나 대처요령에 관한 실무 프로토콜 중심의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응급실이나 이런데서 드레싱이나 소독하는 걸 좀 더 배우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 (중략)... 뭔가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러이러 이러한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양식이라던지 아니면 심근경색... 막 이런 거일 때는 대표적인 증상이 이러다 라든지...(참여자 3)

#### (4) 지역특성에 맞는 풍토질환 관리

다양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지역별로 많이 발생하는 풍토질환을 이해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지역 풍토병... 풍토병 하긴 했어요... 풍토병을 배우긴 배웠는데. ...(중략)... 솔직히 그 때 그게 어떤 것이라는 것만 배웠지 어떤 식으로 처치해야 한다는 것은 부족했어요. ...(중략)... 그 지역에 맞게끔이 안된다면 대략이라도 산간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바다 쪽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게 저는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풍토병이 몇 사람 안 된다고 해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참여자 4)

#### (5) 보건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참여자들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이나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실제적인 운영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기획을 해서 보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주민들... 그런 것들을 해서... 기획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 기획하는 과정이라든가...(참여자 4)

지역사회의 이해보다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실제적인 기획하고 프로그램 진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5)

#### (6) 공문서 작성 및 전산업무

참여자들은 직무교육 중 공문서 작성, 전산업무 등 행정업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하며, 이러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 교육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공문서 만드는 것부터가 해오라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낱장으로 두 장 냈는데 ‘양면에 하는 것도 모르냐’는데 물렸죠. ‘나 이렇게 기본도 모르는구나’ 하고 들어온 거예요. ...(중략)... 띄어쓰기나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참여자 6)

젤 어려웠던 것이 전산입력이나 행정 쪽은 다들 해보면 안다고 해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실습에서도 배우지도 않고 그랬는데... 실습을 좀 해봤으면 더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것 배우는데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애 먹었어요. 실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참여자 7)

#### (7) 리더십 훈련

참여자들은 나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지역 내에서 리더로서

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과의 조정능력이나 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직무교육을 통해 리더십을 개발하고 훈련할 수 있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병원간호사는 개별적으로 제 일만 하면 되고 근무시간 지켜서 내 환자들만 잘 보고 오면 되는데... 여기는 조직이니깐 보건소랑 관계도 그렇고 병원보다는 개별적이지 않으니깐 조직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점도 있고 보건소에서는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이 주문하는 것도 많고 어떤 때는 겹치기도 하고... 그럴 때 조직의 어떤 질서를 따라주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괜히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런데도 내가 욕 먹는 지도 모를 때도 있고... 혼자 있으니 내가 뭘 잘못한지도 잘 모르게 되고... 그래서 조직에 대한 훈련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부분이(교육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죠.(참여자 7)

#### 2) 직무교육 방법

##### (1) 이론과 실습교육 연계

참여자들은 직무교육의 방법과 관련하여 이론교육이 모두 끝난 후 실습이 시작되는 현재의 시스템보다는 이론과 실습교육을 교대로 배열하고 이론의 내용과 실습의 내용이 연결되어 이론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습을 통해 적용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강의와 실습이 분리되어 있는데... 연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습만 하는 것보다는 실습을 하다가 의문 나는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중략)... 강의 쪽, 실습 쪽 하는 그런 교육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실습하다가 모르는 것을 물을 수 있도록 실습, 강의, 실습, 강의 같은 것으로...(참여자 8)

##### (2) 상황이나 사례 중심 교육

참여자들은 단순한 강의 중심의 교육보다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실제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나 사례들을 활용하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할극 참여,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초기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나 사례를 통해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실



습 중에도 보건진료소에서 만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이용하여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과정을 생각해보고 이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업무체계를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소장님들이 오셔서 말씀해주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짜여진 틀에 맞춰서 하는 거 말고 와 닿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히 진료소에 대해 알았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좀 있더라구요. 간혹직이나 별다른 그게 없다 생각했었어요. 좀 더 실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게 소장님들이 말해주면 좋겠어요.(참여자 6)

강의실에서 그룹으로 사례를 주시고 진단을 내리는 것 보다는 직접 보건진료소에서의 사례를 가지고 무엇을 먼저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실제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참여자 8)

### (3) 실기나 실습 위주의 교육

참여자들은 증상관리, 약물처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이론적인 내용에 치중하기보다는 실기나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실무에서 필요한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중략)...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약과 증상관리 사례관리 이런 걸 포커스로 했으면 좋겠어요. ...(중략)... 이론이랑 임상이 연결된 과목 있잖아요. 그런 과목은 과목 자체에도 실습이 필요하고 현장에 가면 실습해보고 하는 기회가 많아지게...(참여자 6)

실제로 와보니 실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병원실기도 필요하지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기라던가 운영기획을 만들어보거나 배워보거나 하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내기 힘들어요. 구체적 내용이 필요해요. 정보제공이 잘 안돼요(참여자 5)

### (4) 진료참관의 기회 확대

참여자들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일차진료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실습이나 보건진료소실습을 통하여 진료 참여나 참관의 기회를 높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직접 진료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환자 측면도 그

렇고 교수님 측면도 그렇고, 진료를 못보고 외래 밖에서 시트지만 본 경우도 너무 많았어요...(중략)... 케이스를 많이 못 보게 되고...(중략)...저희가 진료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하는 것을 많이 보고 싶었는데 그걸 많이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구요(참여자 4)

굳이 대학병원 실습까지는 안하더라도 더 많이 참관하고 더 많이 설명해줄 수 있는 일차 의원이나 아니면 이차 병원에 좀 더... 작은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대신 거기서 더 많이 참관하게 하고...(참여자 3)

이밖에도 참여자들은 총 6개월간의 직무교육 기간이 너무 긴 반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데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기에는 이론교육 기간이 짧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전체적인 직무교육 기간은 단축하되, 이론의 비중은 높이고 실습의 비중은 낮춰 줄 것을 제안하였다. 임상실습과정의 경우 참여자들은 병원에서 12주를 실습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병원이나 보건소에서의 실습은 실습기관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확인하고 관련 업무를 이해하거나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상대적인 교육기회가 적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실습 기간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임상실습 장소는 삼차 의료기관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차진료 참여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일, 이차 의료기관에서의 실습을 선호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하여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인식한 직무역량과 교육요구를 고찰하였다.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은 일차진료, 보건관리, 대인관계, 교육 및 상담, 리더십의 5가지 역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전문간호사의 역량으로 전문가적 간호실무, 코칭과 지도, 자문, 리더십, 협동, 윤리적 의사결정 그리고 연구 역량을 제시한 Hamrio[9]의 제안과 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10]에서 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으로 제시한 전문가적 간호실무, 교육 및 상담, 연구, 리더십, 자문 및 협동과 비교해 볼 때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은 전문가적 간호실무로서의 일차진료와 보건관리 그리고 교육 및 상담, 리더십 등의 면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중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전문가적 실무 수행에

서 프로그램 기획, 행정업무, 자원연계 등으로 이루어진 보건관리 역량이 요구된다고 인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일차진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꼽은 점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의 주요 역할이 일차진료 업무라는 선행연구와 같았다[4,11]. Kim[4]은 보건진료소의 진료량은 1990년대 내내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 1일 9.8명이던 외래 환자수가 1999년에 14.4명이었고, 이것은 같은 기간 동안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큰 증가라고 할 수 있어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일차진료 수행에 대한 역할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과 Shin[11]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활동실적에서 전체 업무량에서 일차진료 업무가 1999년 57.4%, 2002년 59.7%를 차지하였으며, 주로 건강증진관리, 모자보건, 결핵관리, 방문사업, 고혈압관리, 당뇨병관리 등을 수행한다고 보고한 점과 비슷하게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역할 중 일차진료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일차진료에서 약물의 처방은 보건진료소 초기에는 55종의 약물의 처방이 허용되었고, 1985년에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결핵약품, 예방접종약품, 항생제 주사, 농약중독시의 해독제 등이 추가되어 68가지가 허용되었으며[12], 2002년 환자진료지침에 고혈압 및 당뇨병이 추가되면서 개정[13]되어 104종과 기타 약품으로 비타민제, 철분제, 구충약을 포함하여 총 107종의 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상태이다.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이 일차진료 중 약물 처방에 대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점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하나는 대상자 사례별로 정확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에게 허용된 기존의 약물과 계속 개발되고 있는 약물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에게 정확한 처방과 약물 교육 및 상담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선행연구[14]에서도 현재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약제 107종은 실제 사용하기 어렵거나, 관리상 절차가 불편한 것이거나, 사용빈도가 낮은 것이거나,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거나, 최근에 효과가 탁월한 약제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약제들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의 일차진료 업무 중 정확한 약물 사용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약물 처방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과 더불어 기존의 허용 약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제적인 약물 처방능력에 대한 교육적 요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 보건진료소에서 사용되는 약물을 중심으로 약물 처방에 대한 프로토콜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영국의 약물처방 간호사들은 12일간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의사로부터 약물 처방을 위한 교육과 감독을 받는 교육 경험을 통하여 약물 처방에 대한 교육 요구가 83% 이상 만족스럽다고 하여[15], 약물 처방에 대한 사례 중심적이고 현장에서의 실제 약물 처방에 대한 지지가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일차진료 역량에서 만성질환, 노인질환의 관리에 대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문제의 변화로 인한 건강요구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지역사회 건강문제의 변화는 직무교육의 내용에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교육과 지역특성이 반영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으로 풍토질환과 다빈도 만성질환의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며, 특히 사례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은 보건관리역량으로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위하여 프로그램 기획과 행정업무 및 자원연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보건사업의 기획 및 운영능력을 갖추 수 있는 교육과 이를 위한 실제 경력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사업운영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제 임상간호사들의 임상적응과 실무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프리셉터를 활용하여 성과를 보고한 것과 같이[16],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위한 현장 직무(On Job Training; OJT) 교육이 직무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대인관계는 주로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선행연구[8]에서 제시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활동경험 중 지역사회에 동화되어 가고, 지역의 생활밀착형 건강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관계 및 소통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대인관계 역량은 순차적으로 습득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이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지역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역량 중 먼저 인간관계를 맺고 치료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므로, 직무교육에서는 의사소통술 중 진입 또는 관계 맺기를 위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실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역할극, 또는 사례발표, 시연 등의 교육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고 보여진다.

Oh 등[17]은 전문간호사의 역량으로 전문적인 실무역량 다 음으로 교육과 상담의 역량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신 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교육 및 건 강상담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보건진료전 담공무원들의 직무교육에서 실제 건강교육을 수행하고 건강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건강교육을 위 한 교재 개발과 건강교육 수행, 건강상담을 위한 상담 기법 등 에 대한 훈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주도성, 조정, 자 기계발을 리더십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Kim[18]이 리더십의 역할에 자기주도성, 자기계발이 포함된다는 것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문간호사의 리더십으로 타인에 대한 임파워링,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리더십, 변화촉진자로서의 능 력 등[19]은 나타나지 않아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리더 십 역량 인식도 단계적으로 이루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은 기존의 보건진료전담 공무원들에 비하여 4년제 간호교육기관의 확대와 전문간호 사 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간호계의 변화에 비추어 간호전문 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신규 보건진 료전담공무원들에게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인들과의 자문과 협동[9] 또는 주도적인 간호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연구자로 서의 역량[10]은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 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되기 전에 주로 갖는 병원간호사로서의 경험은 일차진료에서 보다 자신감을 갖게 하였으나,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연구와 자문 협동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에 대한 요구는 아직 인식 되지 않으므로, 향후 연구역량과 자문 및 협동 역할을 강화하 도록 돕는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은 직무교육이 보다 더 현장 중 심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실습교육은 일차진료 역량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원 혹은 보건소 진료실 등과 같은 일차진료를 수행하는 곳에서 혹은 사례중심의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의 신규 보건진료전담공 무원 직무교육이 1개의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중앙집중식으 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적인 교 육과 지역 내 보건진료소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보장하 기 위해서는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은 현재의 중앙집중식의 방식보다는 일정 기간 지역별 교육이 진행되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은 간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평

균 8년(범위는 2개월~25년)으로, 통상적인 간호활동에 대한 이론 및 실무 경험을 갖춘 경우이므로 직무교육은 보건진료전 담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 는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 전문간호사 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 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고 전문간호사의 교육은 33학점(1학 점 당 15시간), 약 650시간(이론은 1학점 당 15시간, 실습은 1학점 당 30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비추어보면, 신규 보 건진료전담공무원의 교육을 전문간호사의 교육과 비교해본 다면, 신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배경경험은 전문간호사 과정으로 이행하기에 부족하지 않으며(평균 경력 8년), 전문 간호사 교육시간인 650시간을 집중적인 교육방식(1일에 8시 간)으로 제공한다면 약 82일(16~17주)이 소요되므로 현재 24주의 직무교육기간을 조금 더 줄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에게는 전문가로서의 진입시 에 요구되는 역량으로서 대인관계 역량과 전문간호사로서의 연구 및 자문과 협동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더 강화되어 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직무교육의 내용은 보다 사례 중심적 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내용으로서 일차진료를 수행할 수 있 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전문간호사 교육에 준하 는 교육기간과 지역연계가 강화된 교육장소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 원들의 교육요구가 반영된 직무교육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직무교육을 받고 현 장에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 험하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이해하고 직무 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 원 8명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내용분석하였 다.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은 직무를 경험하면서 일차진 료, 보건관리, 대인관계, 교육 및 상담, 리더십 등 5가지의 직 무역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위하여 직무교육은 전문간호사 수준의 사례 중심적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이 론과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신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를 위한 핵심역량 중 전문가적 간호실무, 리더십, 교육 및 상담은 전문간호사의 일반적 역량과 일치하 였으나, 대인관계 역량은 리더십과 함께 지역사회 내 진입단



계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나타났고, 전문간호사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연구와 자문 및 협동 역량은 신규 보건진료전담 공무원에게는 아직 인식되지 않은 역량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전문간호사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지역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대인관계의 역량과 보건관리 역량을 키워야 하고, 점차 연구 및 자문과 협동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를 위하여 사례 중심적이고,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고, 전문간호사로서의 교육 수준에 맞는 직무교육이 필요하겠다. 이에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무교육의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 직무교육과 함께 신규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위한 현장직무 교육훈련체제를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Shin YA, Kang HK, Kim JS, Kim CM, Park DS, So AY, et al. Primary health care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Cheongwon: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2011, 102 p.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yearbook 2011.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764 p.
- Kim CM, June KJ. Looking back the past 30 years: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in rural and remote areas in Korea. Journal of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2;23(1):51-62.  
<http://dx.doi.org/10.12799/jkachn.2012.23.1.51>
- Kim CY. Primary health care and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Seoul: SNU Health; 2011, 419 p.
-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Association. Annal meeting report. Seoul: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Association; 2007, 47 p.
- Kim MI. An evaluation of ten years achievement of CHPs and their future roles in primary health care in Korea. Yonsei Nonchong. 1992;28(1):297-315.
- Youm JH, Kwon KS. Comparison in the time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s operating activity. Korean Journal of Rural Medicine. 2004;29(1):91-100.
- Hsieh HE, Shannon SE.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005;15 (9):1277-1288. <http://dx.doi.org/10.1177/1049732305276687>
- Hamrio AB. Role and policy of advanced practice nurse. Seoul: Hyunmoonsa; 2005, 615 p.
- 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Role and core competencies of nurse practitioners [Internet]. Seoul: 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3 [cited 2013 April 7].  
Available from: <http://kabon.or.kr/kabon04/index03.php>
- Shin YA. 2011 Modularization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Healthcare improvement activities of public health centers in rural areas. Knowledge Sharing Program, Seoul: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2012. Government Publications Registration No: 11-1051000-000240-01.
- Kim JS, Oh YA, Yoo HS. Report for CHP job description of primary care. Seoul: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1985, 104 p.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Press release. [Internet].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2 [cited 2013 July 10].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1983&page=1](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1983&page=1)
- Kim CM, Song YY, June KJ, Hyeon SS, Shin HJ. Prescription drug use in primary health care posts and its improvement schem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3;24(2):123-134.  
<http://dx.doi.org/10.12799/jkachn.2013.24.2.123>
- Latter S, Maben J, Myall M, Young A. Perceptions and practice of concordance in nurses' prescribing consultations: Findings from a national questionnaire survey and case studies of practice in Eng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07;44(1):9-18.  
<http://dx.doi.org/10.1016/j.ijnurstu.2005.11.005>
- Kim CH, Kim HS, Cho HS, Lee SO, Ham HM, Park MM. The Effect of preceptorship on the job training of new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000;12(4):546-559.
- Oh KS, Kim MJ, Kim KS, Park JW, Sung MS, Oh EG, et al. Educational issues and strategies to improve APN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7;37(5):801-809.
- Kim MS. Role of self-lead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formatics competen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9;39(5):731-740.  
<http://dx.doi.org/10.4040/jkan.2009.39.5.731>